

성도의 빈자리

남 두 환 (목사, 충북 제천 신현교회)

작년 10월 26일 오후, 누님과 조카들이 와서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임종옥 집사의 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권찰님이 일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다. 식사를 하다 말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다. 가보니 동네 사람들이 몇 분이 모여있고 국도 한쪽에 몇 명이 서 있었다. 권찰님은 도로에 누워 있었다. 사고 차는 뺑소니를 쳤다고 하였다. 동네 분들이 흔들며 정신차리라고 소리쳤다. 가서 가만히 붙들고 “권찰님!” 하고 부르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였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 일 줄은 몰랐다. 10분 정도 지나 119구급차가 도착하였는데 옮기면서 맥을 잡아보니 멈추어진 듯 했다. 서둘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의사가 진찰하더니 운명하였으니 영안실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렇게 허무하고 슬플 수가 없었다.

집사님 맥으로 전화해서 돌아가셨으니 동네에서 준비하시라고 연락을 하고 자녀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권찰님은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은 직장관계로 나가있고, 혼자 생활하고 계셨다. 한참 후, 충북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있는 딸이 도착해서 어떻게 된 일이나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어서 큰아들이 도착하였다. 영안실을 열고 얼굴을 보여주는데 편안한 모습으로 잠자고 있는 것 같았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 금요일 연합구역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다과를 나누는 가운데 캐나다가 어떤 나라이냐고 묻길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막내 딸(간호사)이 캐나다에 가서 일하며 공부하려고 사표를 낸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물은 것이었다. 그래서 안심시키기 위해 살기 좋은 곳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토요일 저녁에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 딸이 엄마 얼굴을 만지며 “엄마 미안해요 이러시면 안되지요” 라고 울부짖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권찰님은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대심방 때 이웃집에 놀러왔다가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말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였다.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교회 행사 때는 손칼국수를 밀어와 함께 끓여 먹기도 하고, 사택으로도 가끔 밀어 가지고 왔다. 필자도 친구의 어머니이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도와 드렸다. 보일러도 놓아드리고, 사료나 비료 등을 사다 드리기도 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음료수나 과일을 가지고 와 미안해하였다. 아들 친구지만 목사라고 정성을 다하여 대해 주었다. 아픈 다리도 막내딸이 근무하고 있는 충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여 무척이나 좋아하였는데 기쁨도 잠시,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권찰님의 소천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슬픔이고 목회자인 나에게도 큰 슬픔이었다.

농촌교회는 한사람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 교회에 한사람의 빈자리가 생기니 얼마나 크고 허전한가!. 교회의 빈자리는 여러 경우가 있다. 이사 가서 생기는 빈자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

면 그렇게 허전하지 않다.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빈자리가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계실 것을 믿으니 위로가 된다.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생기는 빈자리도 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젠가 다시 나올 것을 믿고 기도하니 소망이 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는 설교하며 바라 볼 때마다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허전하고 아쉬움이 떠나지를 않는다.

지금도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 권찰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교회 오갈 적마다, 권찰님이 없는 불꺼진 빈집을 지날 때마다 생각나곤 한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편히 계실 권찰님, 교회에 남겨놓은 빈자리가 하루빨리 채워지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교육관 건축과 중학생들

농촌에 위치한 면(面)단위 이하 교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년출석교인이 20-30명 정도이며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신현교회도 다름이 없다. 농촌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관 건축을 무사히 마치고 봉헌하였다. 교육관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회갑이나 잔치를 할 때 동네 분들이 사용하시고 좋아한다. 또, 교회 행사 때 교회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교육관에서 할 수 있으니 성도들 모두가 좋아하고, 이웃교회 성도들도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지하실과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중등부 학생(김성섭, 이명식, 신규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도움과 정성을 잊을 수가 없다.

필자는 1989년도에 신현교회 (당시 용바위 교회)에 부임했는데, 부흥회하고, 수련회 하다 보니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말이 많았다. 어느 날 새벽에는 수련회 온 학생들이 잠 안자고 시끄럽게 한다고 식칼을 들고 사택으로 달려와 욕을 하며 소리친 일도 있었다.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마음놓고 하려면 지하 기도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도들에게 기도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밤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삼, 호미, 팽이를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달 정도 했다. 성도들 입에서 헌금해서 포크레인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고 바보같은 일이었다. 15평 지하실을 사람이 어떻게 파겠는가?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다보면 될 것이라는 믿음밖에 없었다. 주의 종의 말이라고 순종하고 따라 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기만 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 같다.

지하실 건축을 하고 2년 후, 교육관이 필요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부탁을 하고 또 건축을 시작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직접 하기로 했다. 건축하는 공사현장에 가서 기술자들이 일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용기있게 시작했다. 벽돌을 쌓았다. 외벽은 블록으로 쌓고, 가운데 스티로폴 넣고, 내벽은 시멘트 벽돌로 쌓고 내, 외벽 미장을 하고 지붕은 스텔트로 덮었다. 내부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방시설을 했고, 바닥은 보일러를 설치했다.

26.5평을 벽돌로 쌓는데 밥만 먹으면 가서 쌓았다. 성도들은 농사일로 바빠서 봉사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일을 했다. 아내는 복막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거운 것

드는 것을 조심해야 할 때였지만 할 수 없었다. 아들 성지(7살), 신지(6살)도 아빠에게 작은 벽돌들을 날라다주었다.

이렇게 하루종일 일을 하다 오후 3-4시가 되면 기다려지는 아이들이 있었다. 중등부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방 갖다 놓고는 바로 일터로 와서 벽돌을 날라주며 열심히 일을 도왔다. 한창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고 싶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와서 도왔다. 그때 그들은 중 3이었다. 고등학교 시험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벽돌을 다 쌓을 때까지 도왔다.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쳐서 그만 두었을지도 모른다. 2-3개월을 쌓았다. 이 글을 쓰면서도 코끝이 찡하는 고마움을 느낀다. 그중 성섭이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열심히 도왔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 교회 가서 일만하다가 고등학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했다.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그들이 고등학교 시험에 꼭 합격하길 간절히 기도하였다.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합격자들의 발표가 났는데 3명 모두 충주 신흥고, 충주 대원고, 충주여상에 합격하였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다. 그들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군대 갔다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학갈 수 있느냐고 조롱 섞인 비판을 했던, 믿지 않는 친구 어머니는 자기 아들은 지방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학생은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무 말도 못하였다. 지금 그 학생은 미국 유학 중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봉사한 그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는다. 이제 그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길 기도해 본다.